

성인장애인의 자기 돌봄 활동 유형과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와의 관계 탐색

김정은 · 류진석* · 김대식** · 배승종***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충남대학교 지역환경토목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연구교수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Self-Care Activities and Demand of Agro-Healing Services in Adults with Disabilities

Kim, Jeong-Eun · Ryu, Jin-Seok* · Kim, Dae-Sik** · Bae, Seung-Jong***

Dept. of Social Welfa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Dept. of Social Welfa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Agricultural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Institute of Green Bio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self-care activities and demand of agro-healing services in adults with disabilities. Data were obtained from a survey of 160 adults with disabilities dwelling in Korea and SPSS 25.0 software was used for frequency,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applying the Behavioral Model for vulnerable populations were as follows: 1) among the different types of their self-care activities, the mean of passive perceptions score was 1.13(SD=0.81), the mean of physical behaviors score was 3.01(SD=1.04), the mean of social relationships score was 1.40(SD=1.42) and the mean of agro-healing services utilization per year was 4.30(SD=2.55), 2) passive perceptions and social relationships in their self-care activities positively affected demand of agro-healing services, 3) age, perceived physical health, perceived mental health, region of adults with disabilities were also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mand of agro-healing services. Based on these results,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for promoting self-care activities and agro-healing services in adults with disabilit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Adults with Disabilities, Agro-Healing Services, Self-Care Activities, The Behavioral Model for Vulnerable Populations

I. 서 론

최근 장기간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심각한 국민 건강 문제와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치유

농업 서비스가 부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전주 시(2020)에서는 코로나19로 우울감과 상실감을 경험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치유타밭, 치유정원, 원예치유 프로그램, 체험농장, 동물매개치유 등 치유농업 서비스를 연계한 마음치유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상황 속 개인의 정서적인 안녕과 영향 요인에 대한 국외의 연구 결과, 일상생활 속 운동이나 취미활동뿐만 정원 가꾸기, 야외·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활동이 행복, 이완, 활력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고 슬픔, 짜증, 지루함, 외로움 등의 부정적 정서

Corresponding author 1: Ryu, Jin-Seok

Tel : +82-42-821-6475

E-mail : ryujs@cnu.ac.kr

Corresponding author 2: Bae, Seung-Jong

Tel : +82-33-339-5811

E-mail : bsj5120@snu.ac.kr

를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Lades et al., 2020).

우리나라에서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 회복과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농업 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제공되는 형태나 내용에 따라 원예, 산림, 동물매개, 농작업치유 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RDA, 2020). 치유농업의 효과성은 만성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비장애인들 모두에게 신체 및 정신건강, 안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내외 연구결과에서 일관되게 검증되어 왔다(Care Farming UK, 2017; RDA, 2020).

이에 치유농업의 서비스 수요는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Bae et al., 2019) 다양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그 가운데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인장애인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성질환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 발생 위험과 노화로 인한 이차적인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Jepsson Grassman and Whitaker, 2013; Kelley-Moore, 2010), 이들은 향후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가 높은 대표적인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비장애인들에게(Park et al., 2017; Bae et al., 2019) 편중되어 왔을 뿐 성인장애인 대상의 조사는 매우 제한된 실정이다(Kim et al., 2019). 이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성인장애인의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이들의 자기 돌봄 활동 유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 돌봄은 자신의 건강이나 안녕을 위해 자기 스스로 실천하는 다양한 건강증진 행동들을 의미하는데, 장애인들에게 있어 장애나 질병 이후의 새로운 삶을 대처하고 자신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하나의 과정이자 유용한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다(Azar et al., 2020; Cornet et al., 2020). 성인장애인의 자기 돌봄 활동은 자살생각이나 시도(Lee and Kim, 2016)와 같은 극단적인 자기 방임에서부터 재활이나 건강관리에 애쓰거나(Kim, 2016) 지역사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자아실현의 삶을 살아가는 등(Kim et al., 2019; Seo and Seo, 2020)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즉, 이들의 자기 돌봄 활동의 유형은 자기 돌봄에 대한 인식과 활동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동시에 성인장애인의 자기 돌봄 활동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것은 차별화된 개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이다. 특히, 이들의 치유농업 서비스와의 인과관계 검증은 이들의 자

기 돌봄 활동과 사회적 돌봄을 가능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로 취약계층을 위한 행동주의 모형(Gelberg et al., 2000)을 적용하고자 한다. 행동주의 모형은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과 영향 요인에 관한 이론적 틀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Andersen, 1995; Kim and Kahng, 2014; Song and Won, 2014). 이 모형에서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은 선행요인으로, 보험상태, 소득 등과 같이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나 수단은 가능요인으로, 장애나 질병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나 객관적인 평가 요인은 욕구요인으로 구분되어 검증되어 왔다(Andersen, 1995). 최근에는 노숙인, 노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특성과 운동, 식이요법, 운동, 건강 서비스의 이용, 흡연 등과 같은 개인적인 건강 실천의 요인들이 보완되었다(Gelberg et al., 2000). 성인장애인의 서비스 필요욕구가 높을수록 서비스 이용경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인과관계의 선행결과를 근거해볼 때(Kim and Kahng, 2014), 이들의 자기 돌봄 활동 유형과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와의 관계에 대한 탐색은 이론적, 실천적인 함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취약계층을 위한 행동주의 모형에 근거하여 성인장애인의 자기 돌봄 활동 유형을 3가지로 유형화하고,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와의 인과관계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장애인의 자기 돌봄 활동 유형과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의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성인장애인의 자기 돌봄 활동 유형과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와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성인장애인의 다양한 자기 돌봄 활동 유형과 치유농업 수요와의 인과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Figure 1).

우선, 취약계층을 위한 행동주의 모형(Gelberg et al., 2000)에서 제시된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들 가운데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장애 특성 관련변수들은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자기 돌봄 활동 유형을 독립변수로 제시하였다. 성인장애인의 자기 돌봄 활동의 유형은 성인장애인의 건강관리나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들을(Kim, 2016; Lee and Kim, 2016; Kim et al., 2019; Azar et al., 2020; Seo and Seo, 2020) 참조하여 수동적 인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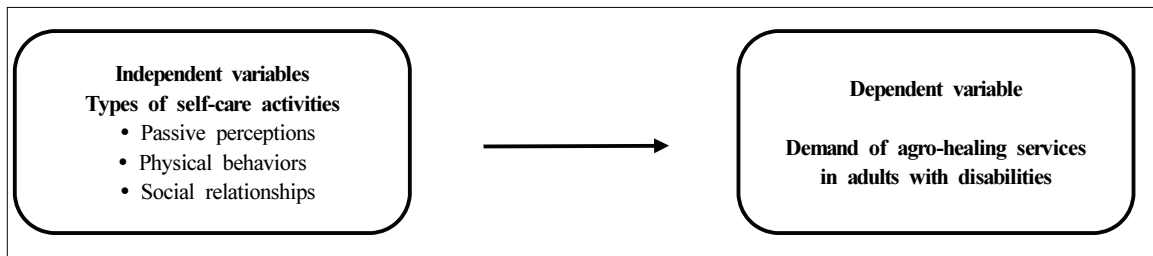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신체적 활동형, 지역사회 관계형으로 구분하였다. 종속변수는 치유농업 서비스의 수요로 설정하였다.

행동주의 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 결과들에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서비스 이용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Andersen and Newman, 1973; Gelberg et al., 2000). 또한 서비스 필요욕구와 서비스 이용경험 가능성과의 관계 역시 정적인 관계가 나타난 점을 근거로(Kim and Kahng, 2014), 본 연구에서의 성인장애인들의 자기 돌봄 활동 유형과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와의 관계 역시 정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2.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제시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신장, 심장, 정신, 호흡기, 간 장애 등 총 15개 장애 유형에 해당되는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중 도시와 농촌지역의 가정에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장애인들이다. 조사대상자 확보를 위해 서울, 대전, 충남 홍성군 및 충북 옥천군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로부터 조사대상자 명단을 협조 받았다.

다음으로 연구내용에 대한 이해와 응답이 가능하고,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를 표한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서베이를 수행하였다. 조사는 연구자와의 일대일 대인면접, 전화면접 방법으로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60명이 유의표집 되었다.

3. 변수의 측정 및 자료분석 방법

첫째, 종속변수는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이다. 이에 대한 측정은 “향후 치유농업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1년 간 총 몇 회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습니까?”라는 개방형의 질문으로 조사하였다. 총 이용 횟수가 많을수록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둘째, 독립변수는 성인장애인의 3가지 자기 돌봄 활동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수동적 인식형은 최근 6개월 간 자기 자신의 건강이나 안녕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 중 이제 내 자신을 스스로 돌보아야겠다는 자기 돌봄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여부, 집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는지의 여부, 집에서 혼자 낮잠을 자는 여부의 3문항을 예 또는 아니오(=0)의 응답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신체적 활동형은 집 안이나 밖에서의 신체적 활동과 관련된 7개 항목(찜질이나 마사지, 체조나 운동, 병원진료, 방문간호, 물리치료, 운동치료, 기타)을 예 또는 아니오의 응답으로 조사하였다. 지역사회 관계형은 6개 항목(이웃이나 친구와의 친교, 지역사회 복지시설에서의 개별 또는 집단상담, 자조모임, 여가활동 프로그램, 자원봉사, 기타)을 예 또는 아니오의 응답방법으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응답에서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을 부여하여 총합의 점수로 측정하였고, 총합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돌봄 활동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셋째,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인 통제변수는 성별, 만 연령, 학력수준(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이상)), 장애유형(지체, 뇌병변 장애 등 보건복지부 등록의 15개 장애유형), 직업 유무, 지각된 신체건강(1=매우 나쁘다~5=매우 건강하다의 5점 Likert 척도), 지각된 정신건강(1=매우 나쁘다~5=매우 건강하다의 5점 Likert 척도), 거주지역(도시, 농촌)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응답 자료는 SPSS 25.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Table 1). 먼저, 남성은 85명(46.9%), 여성은 75명(53.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60)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Gender	Male	85(46.9)	Age	Range	21~72
	Female	75(53.1)		Mean(SD)	47.77(13.98)
Education	Elementary school	20(12.5)	Employment	Employed	99(61.9)
	Middle school	12(7.5)		Unemployed	61(39.1)
	High school	59(36.9)	Disabilities	Physical	76(47.5)
	More than college	69(44.1)		Brain lesions	46(28.8)
Perceived physical health	Range	1~5	Visual	24(15.0)	
	Mean(SD)	3.34(0.80)	Mental	5(3.1)	
Perceived mental health	Range	1~5	Kidney	3(1.9)	
	Mean(SD)	3.15(0.97)	Cardiac	2(1.3)	
Region	Urban area	102(63.8)	Intellectual	2(1.3)	
	Rural area	58(36.2)	Hearing	2(1.3)	

평균연령은 만 47.77세(SD=13.98)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은 대학 졸업 이상이 69명(4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현재 갖고 있다는 응답이 99명(61.9%)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각된 신체건강과 지각된 정신건강 모두 5점 만점에 각각 평균 3.34점(SD=.80), 3.15점(SD=.97)으로 나타나 모두 3점대의 보통인 편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유형은 지체장애가 76명(47.5%)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주지역은 도시가 102명(63.8%)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성인장애인의 자기 돌봄 활동 유형 및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 특성

독립변수인 성인장애인의 자기 돌봄 활동 유형을 살펴본 결과, 수동적 인식형의 범위와 평균값은 각각 0~3개, 1.13개(SD=0.81)로 나타났다. 신체적 활동형의 범위와 평균값은 각각 0~7개, 3.01개(SD=1.94), 지역사회 관계형은 0~6개, 1.40개(SD=1.42)로 나타났다(Table 2).

각각의 자기 돌봄 활동 유형을 중간값 기준으로 비교하면, 수동적 인식형과 신체적 활동형은 중간값에 머무

르고, 지역사회 관계형은 중간값 2.5개 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성인장애인의 지역사회 관계형의 자기 돌봄 활동 유형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 등 신체적인 장애유형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편향된 표본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보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응답율이 높고,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조사대상자 표본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성인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인 서비스가 질적, 양적으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속변수인 성인장애인의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를 향후 1년간 치유농업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총 횟수로 측정된 결과, 1~12회의 범위를 보이는 가운데 평균 4.30회(SD=2.55)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서울과 수도권 및 4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연간 6회 이상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Bae et al., 2019), 도시 지역의 성인장애인 10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평균 3.71회(SD=1.89)로 나타났다.

Table 2. Types of self-care activities and demand of agro-healing services

(N=160)

Variables	Category	Range	Mean(SD)
Types of self-care activities	• Passive perceptions	0~3	1.13(0.81)
	• Physical behaviors	0~7	3.01(1.94)
	• Social relationships	0~6	1.40(1.42)
Demand of agro-healing services	The number of agro-healing services utilization per year	1~12	4.30(2.55)

조사대상자의 표본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의 한계는 존재하지만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성인장애인의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는 더 낮지만 장애인의 치유농업 서비스는 이전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치유농업 서비스 인식과 참여 경험 부족한 여건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성인장애인들이 이전보다 높아진 치유농업 서비스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특히, 농촌지역의 성인장애인들의 높은 수요를 보여준 결과로도 이해된다. 국외에서는 치유농업 서비스의 주된 이용자로 학습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신체장애, 학업이나 행동 등의 장애나 문제가 있는 대상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치유농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의 수도 일주일에 1~3회, 평균 35명, 250여개의 치유농장 전역에서 일주일에 총 8,75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Care Farming UK, 2017). 이를 볼 때, 향후 우리나라 역시 사회적 돌봄 차원에서의 장애인과 성인장애인들의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 역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성인장애인의 자기 돌봄 활동 유형과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와의 인과관계

성인장애인의 자기 돌봄 활동 유형과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와의 인과관계를 위계적 회귀분석방법으로 검증하기 전 각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계수가 절대값 6미만인 $-.181 \sim -.566^{**}$ 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팽창계수값 모두 10미만으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인 선형성, 등분산성, 정규성 역시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3) 첫째,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인 통제변수를 투입한 모델 1의 설명력은 31.7%, F값은 10.211로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장애인의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는 연령($B = .062, p < .001$), 장애유형($B = -.757, p < .05$), 지각된 신체건강($B = .890, p < .001$), 지각된 정신건강($B = -1.069, p < .001$), 거주지역($B = -.850, p < .05$)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장애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장애유형이 지체장애가 아닌 경우, 지각된 신체건강이 긍정적일수록, 지각된 정신건강이 부정적일수록, 거주지역이 농촌인 경우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은 지각된 정신건강($\beta = -.407, p < .001$), 연령(β

$= .337, p < .001$), 지각된 신체건강($\beta = .279, p < .001$), 거주지역($\beta = -.161, p < .05$), 장애유형($\beta = -.149, p < .0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도시지역의 성인장애인 102명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를 조사한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만성질환이 많을수록, 우울증이 있는 경우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Kim et al., 2019) 성인장애인의 개인적 특성 중 정신건강 요인이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의 중요한 정적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독립변수인 성인장애인의 자기 돌봄 활동 유형을 투입한 모델 2의 설명력은 모델 1보다 6.1% 증가한 36.8%로 나타났으며, F값은 9.425로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증가된 설명력의 유의성을 유의확률 F 변화량으로 확인한 결과 5.107로 나타났으며, 이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분석 결과, 성인장애인의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에는 신체적 활동형을 제외한 소극적 인식형($B = .665, p < .05$)과 지역사회 관계형($B = .451, p < .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관계로 확인되었다. 즉, 성인장애인의 자기 돌봄 활동 유형 중 수동적 인식형과 지역사회 관계형의 자기 돌봄 활동 수준이 높아질수록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 역시 긍정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에 지역사회 관계형($\beta = .252, p < .01$)의 영향력이 수동적 인식형($\beta = .212, p < .05$)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인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과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와의 정적관계는 선행연구 결과와(Kim et al., 2019) 일치하는 내용이다.

기타 통제변수 중 연령과는 정적 관계($B = .046, p < .01$), 지각된 신체건강과는 정적 관계($B = .637, p < .05$), 지각된 정신건강과는 부적 관계($B = -.734, p < .05$), 거주지역과는 부적 관계($B = -.782, p < .05$)로 나타났다. 즉, 성인장애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지각된 신체건강이 긍정적일수록, 지각된 정신건강이 부정적일수록,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취약계층을 위한 행동주의 모형을 중심으로 성인장애인의 다양한 자기 돌봄 유형과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와의 인과관계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과 대전, 충남 홍성군 및 충북 옥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등록의 재가 장애인 중 만 19세 이상의 성인장애인 160명을 유의표집 하여 서베이

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성인장애인의 자기 돌봄 활동 유형 가운데 수동적 인식형은 평균 1.13개(SD=0.81), 신체적인 활동형은 3.01개(SD=1.94), 사회적 관계형은 1.40개(SD=1.42)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치유농업 서비스의 수요는 1~12회의 범위 가운데 평균 4.30회(SD=2.5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인장애인의 자기 돌봄 유형과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와의 관계를 위계적 회귀분석방법으로 검증한 결과, 성인장애인의 수동적 인식형, 지역사회 관계형은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요인 중 성인장애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지각된 신체건강이 긍정적일수록, 지각된 정신건강이 부정적일수록,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치유농업 서비스의 수요와는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건의료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행동주의 모형(Gelberg et al., 2000)이 농촌계획 분야로 확대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함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인장애인을 위한 치유농업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 정보 차원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실천적,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성인장애인의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기에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치유농

업 서비스 프로그램의 콘텐츠 개발과 홍보 활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성인장애인의 자기 돌봄 활동 유형 중 수동적 인식형과 사회적 관계형이 유의미한 정적 관계로 나타난 점은 성인장애인 서비스 이용자 특성을 세분화한 맞춤형 치유농업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보건의료, 운동 등의 신체적 활동형과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와 부적인 관계로 나타난 점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지적장애 유형의 조사대상자가 많은 표본의 특성이 반영된 제한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동안 치유농업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들의 인식이 신체적인 활동 위주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동시에 장애인을 대상의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의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편적인 설계나 무장애 편의시설 확충, 보조기구 개발 및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배치 등도 섬세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성인장애인의 연령, 지각된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거주지역이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성인장애인의 다양한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의 프로그램 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다양한 성인장애인 중 고령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 치유농업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거주지역의 경우에서도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치유농업 서비스의 수요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사회복지시설

Table 3.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N=160)

Variables		Model 1		Model 2	
		B	β	B	β
Control Variables	Gender(M=1, F=0)	-.059	-.012	.086	.017
	Age	.062***	.337	.046**	.251
	Education(College=1, Others=0)	-.610	-.119	-.604	-.117
	Disabilities(Physical=1, Others=0)	-.757*	-.149	-.633	-.124
	Employment(Employed=1, Other=0)	-.159	-.030	-.181	-.034
	Perceived physical health	.890**	.279	.637*	.200
	Perceived mental health	-1.068***	-.407	-.734*	-.280
	Region(Urban=1, Rural=0)	-.850*	-.161	-.782*	-.148
Types of self-care activities	Passive perceptions			.665*	.212
	Physical behaviors			-.087	-.066
	Social relationships			.451**	.252
R ²		.351		.412	
Adjusted R ²		.317		.368	
F-value		10.211***		9.425***	

*p<.05, **p<.01, ***p<.001

이나 서비스의 제공이 도시지역에 비해서 제한된 여건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향후 치유농업 서비스에 대한 제공에 있어 농촌지역의 재가 성인장애인이나 중증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과 콘텐츠 개발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치유농업 서비스의 실천적인 활성화 노력뿐만 아니라 정책적 차원의 대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3월 24일 제정되고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치유농업의 과학적 효과, 산업화 기술 개발, 서비스 모델 발굴, 인력양성과 정보 제공이 중점·추진될 예정이다(RDA, 2020). 이에 국가뿐만 아니라 전주시(2020)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관련 시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인장애인의 치유농업의 서비스 수요 조사 이외에도 농업·복지 융합형 사업 발굴을 정책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RDA, 2020) 사회복지학을 비롯한 심리학, 체육학, 보건 및 의학 등의 다학제 차원의 연구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일부 지역의 제한된 표본과 측정도구, 양적인 연구방법으로 조사된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설거주 장애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 장애유형과 연령 등을 포함한 대규모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양적조사와 다양한 성인장애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질적조사가 활발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 조사 역시 희망 횟수와 같은 양적 차원뿐만 아니라 희망 분야와 방법, 비용 등 다양한 기준과 내용에 대해 질적 차원의 조사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명: 사회복지제도와 농업 농촌정책 융복합을 통한 지역맞춤형 도농공존 거점공간 모델개발 연구, 과제번호: NRF-2019S1A5A2A03052335).

Reference

1. Andersen, R, 1995, Revisiting the Behavior Model and Access to Care: Does It Matte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1): 1-10.
2. Azar, N. S., Radfar, M. and Baghaei, R., 2020, Spiritual Self-Care in Stroke Survivors: A Qualitative Study,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early access).
3. Bae, S. J., Kim, D. S., Kim, S. J., Kim, S. P., Lee, W. L., Ryu, J. S., Kim, J. E. and Park, S. A., 2019, Recognition and Demand Analysis of Agro-Healing Services by Supply Typ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5(4): 1-11.
4. Care Farming UK, 2017, Care Farming in the UK and Ireland: Annual Survey 2016/17.
5. Cornet, V. P., Daley, C., Cavalcanti, L. H., Parulekar, A. and Holden, R. J., 2020, Design for Self-Care. In *Design for Health* (pp. 277-302). Academic Press.
6. Gelberg, L., Andersen, R. M. and Leake, B. D., 2000, The Behavioral Model for Vulnerable Populations: Application to Medical Care Use and Outcomes for Homeless People, *Health Services Research*, 34(6): 1273-1302.
7. Jeonju-City, 2020, The Mind-Healing Program for Jeonju Citizen, <https://www.jeonju.go.kr>.
8. Jeppsson Grassman, E. and Whitaker, A., 2013, Ageing with Disability: A Lifecourse Perspective, Policy Press.
9. Kelley-Moore, J., 2010, Disability and Ageing: The Social Construction of Causality, *The SAGE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96-110.
10. Kim, H. L., 2016, The Effects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hysical Health Behaviors on People with Mental Illness, Ph.D.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11. Kim J. E., Kim, D. S. and Ryu. J. S., 2019. 11. 1.,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Care Types and the Demand of Agro-Healing Service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2019 Autumn Academic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2. Kim, S. Y. and Kahng, S. K., 2014, Factors Associated with Service Utilization among Individuals with Severe Mental Illness: Using the Andersen's Behaviors Model,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5(1): 175-202.
13. Lades, L., Laffan, K., Daly, M. and Delaney, L., 2020, Daily Emotional Well-be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Brief Report*, 1-10.
14. Lee, Y. S. and Kim, H. S., 2016, Suicide Ideation and Suicide Attempt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Effects of Household Income and Experienced

- Discrimination,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33: 5-34.
15. Park, S. A., Lee, A. Y., Lee, G. J., Lee, W. L., Bae, S. J., Park, B. J. and Kim, D. S., 2017, A Study of Awareness and Needs for Care Farming in South Korea, *Journal of People Plants Environment*, 20(1): 19-24.
16.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2020, The Four Directions of Agro-Healing for National Health and Agriculture, <https://www.rda.go.kr>.
17. Rotheram, S., McGarrol, S. and Watkins, F., 2017, Care Farms as a Space of Wellbeing for People with a Learning Disability in the United Kingdom, *Health Place*, 48: 123-131.
18. Seo, W. S. and Seo, W. Y., 2020, A Study on the Processes of Dehospitalization of People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in the Community: Based on Grounded Theor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0(2): 85-120.
19. Song, I. U. and Won, S. J., 2014,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of Older Adults with Disability Applying Andersen Model,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8(3): 23-45.
20. The Koreatimes, 2020. 4. 8., COVID-19 blues? Look into Seoul's Therapeutic Gardening Programs, <https://www.koreatimes.co.kr>.
-
- Received 12 July 2020
 - First Revised 5 August 2020
 - Finally Revised 11 August 2020
 - Accepted 12 August 2020